

한미약품, 임선민 대표이사 사장 승진



한미약품(대표 민경윤)은 3월28일 영업담당 대표이사 사장에 임선민 부사장을 승진 발령했다.

임선민 영업담당 대표이사 사장은 1948년생으로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부터 한미약품에서 이사·전무이사·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.

또 한미약품은 자사의 중국 현지 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의 총경리에 임종윤 부총경리(33세)를 승진 임명했다.

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총경리는 미국 Boston College에서 화학 학사를 취득하고 2004년부터 북경한미약품의 부총경리로 재직해왔다.

<화학저널 2006/03/30>